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Self-encouragement Programs for Children

아동 대상 자기격려 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Seung-a Choi¹, Mi-Na Lee²

최승아¹, 이미나²

¹ The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Human Service Education, Kwangshin University, South Korea, Mam5705@naver.com

² Professor, Welfare Counseling Convergence Department, Kwangshin University, South Korea, lmn478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Mi-Na Lee

Abstract: In this study, by examining research trends in self-encouragement-related dissertations and academic dissertations for children, this study examines research related to encouragement and provides directions and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It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future self-encouragement research directions by arranging research results and trends through analysis. Using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we searched for degree thesis and domestic academic thesis published in Korea for 11 years from 2010 to 2020. After searching for keywords such as 'Encouragement group program' and 'Children', 37 articles related to encouragement were selected for children. Among the articles searched for 'Encourage others' and 'Children', two articles were included, excluding duplicate articles. Among them, 20 research studies and 41 experimental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excluding papers that could not be viewed in the original text. The characteristics analysis criteria of the research subjects can be explained by dividing them into individu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dividual factors were divided into 'general', 'school violence', 'learning difficulty', and 'maladjustment'. 'General' was classified as students with normal cognitive and emotional levels, and 'School Violence' was classified as students who experienced violence due to exposure to school violence. 'Difficulty in learning' refers to children who have difficulties in any one of poor learning, learned helplessness, low achievement motivation, and high test anxiety. were classified as children with.

Keywords: Children, Self-Encouragement, Trend Analysis, Positive Psychology, Encouragement of Others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격려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격려관련 연구를 고찰하고 후속 연구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연구성과와 흐름을 정리하여 향후 자기격려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격려집단 프로그램, '아동'의 주제어를 검색한 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격려 관련 논문

Received: October 01, 2022; 1st Review Result: November 15, 2022; 2nd Review Result: December 15, 2022
Accepted: January 31, 2023

37편을 선정하였고, ‘자기격려’, ‘아동’ 검색어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2편과 ‘타인격려’, ‘아동’ 검색어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편을 포함하였다. 그 중 원문보기가 안되는 논문을 제외하여 조사연구 20편, 실험연구 41편 총 61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 분석기준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요인은 ‘일반’, ‘학교폭력’, ‘학습곤란’, ‘부적응’영역으로 나누었다. ‘일반’은 연구대상이 인지와 정서 수준이 보통인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은 연구대상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학습 곤란’은 연구대상이 학습부진, 학습된 무기력, 낮은 성취동기, 높은 시험 불안 중에 하나라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고, ‘부적응’은 연구대상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응 경험을 겪고 있는 아동들로 분류하였다.

핵심어: 아동, 자기격려, 동향 분석, 긍정심리, 타인격려

1. 서론

아동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양심이나 도덕, 그리고 가치 체계를 발달시켜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아동기는 발달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을 숙달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며 성장한다. 이때 적절한 성공 경험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자신감을 갖게 된 아동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한다. 반면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며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된다[1]. 격려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상담 치료적 기술로 상담초기에서부터 전반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 낙담한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핵심적 구성요인이다[2]. Adler개인 심리학 상담자들은 격려가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시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격려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 기법으로 주목한다[2]. 격려는 내담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주고, 공동체와의 단합을 촉진시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미래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격려는 내담자 자신의 강점 및 장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나 승인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한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격려 연구에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 효과[4], 자기조절학습과 자기격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5], 아동의 자기격려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가 있다[6]. 교육 현장에서 또래와의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할 뿐 만 아니라 인간적,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동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적인 힘을 길러 자기 격려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격려에 대한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빈곤 가구 50%미만이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나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 적절한 정보와 정서적인 지지 등의 제공이 부족하며 빈곤 가구 가정의 건강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빈곤 가구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아동들은 의식주가 절대적인 물질적 환경에서 박탈과 관계, 교육과 기회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결핍과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 부모의 불화나 미해결 갈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불안과 위축, 긴장감 등 정서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좌절감 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다[7][8]. 그리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나 애정 욕구 충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적절한 욕구 조절과 타협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상호작용조차도 습득할 수 없어서 또래관계 기술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8][9]. 따라서 아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재적으로 불안과 우울 위축 등을 경험하며 동시에 마음의 분노를 형성되는 경향으로 이는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들로 이어지게 된다[1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아동이 78%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11]. 아동기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전반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가족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와 사회, 또래와의 관계 등 사회관계를 넓히고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우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적 사회적응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이다[7].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또래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아동이 겪는 문제양상들에 따라 성장과 발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12]. 즉 아동기의 초기 사회성 발달은 향후 청소년기의 비행 문제나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와 같이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특히, 가족이나 학교, 또래로부터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여 공격적이거나 반항적, 충동적 행동을 취하며, 비난과 칭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과제 수행 부분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비난 시 수행 능력이 낮고, 칭찬 시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인다[14]. 또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과도한 불안과 긴장감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기 쉽고 지지가 부족하여 관계에서의 잦은 실패와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슬픔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심리·행동적 문제를 갖는 특성이 있다[15].

따라서, 아동의 상당수가 또래 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며, 사회·정서적 장애와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7]. 이러한 영향이 성인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심각성과 조속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13].

2.2 자기격려

격려는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미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는다[3]. 자기격려란 스스로에게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것이며 평가적이지 않고 기술적이고 또한 과정에서 노력과 향상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 수행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 격려는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에게 용기를 갖게 하며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킨다[16]. 즉, 아동에게 있어서 자기격려란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것으로, 아동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강화시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심리적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자기격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격려는 인지.행동.정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17]. 첫째, 인지적 측면은 개인심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측면으로 아동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관심을 두며, 격려는 아동의 내적 신념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16]. 둘째, 행동적 자기격려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 중 적극적 대처나 해결방안 강구와 유사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행동적 자기격려에서 도전과 문제 해결시도는 과업 수행이나 목표달성 또는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통제하는 행동으로 자기통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동적 자기격려 중 언어적 강화나 신체활동은 자기위로능력의 하위 변인과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셋째, 정서적 자기격려에서 존중감은 자아존중감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우울,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낮았다[17].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자기를 격려하는 방법이 인지.행동.정서로 구분되어 있다.

2.3 자기격려 프로그램

자기격려 프로그램은 구성 방향에서 대체적으로 열등감(단점) 수용, 강점 탐색, 비합리적 신념변화, 격려연습하기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6][16]. 기존 연구자들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격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강화시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보호 자원이라고 하였으며 그 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7]. 자기격려는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존중, 자기칭찬, 자기표현, 자기확신의 6가지로 자기 격려의 구성 요인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준거로 사용하였다[1]. 사회성 향상과 분노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격려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8]. Adler 개인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자기격려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및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1][16][17]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 논문과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둘째, ‘격려 집단 프로그램’, ‘아동’으로 주제어를 검색한 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격려 관련 논문 37편을 선정하였고, ‘자기격려’, ‘아동’으로 검색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2편과 ‘타인 격려’, ‘아동’으로 검색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편을 포함하였다. 그 중 원문보기가 안되는 논문을 제외하여 조사연구 20편, 실험연구 41편 총 61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을 재정리해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연구의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학술 논문은 배제하여 선정하였다

3.2 분석 기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2010년 이후의 상담 관련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논문에 제시된 몇 가지 기준들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 집단상담의 동향분석에서는 발표 연도별 연구동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프로그램 실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10]에서는 발표 연도, 학위논문 유형, 연구대상, 연구방법, 접근방법, 연구주제, 프로그램 실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기준을 토대로 격려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발표 연도별 연구동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주제, 격려 주제, 실험연구 실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통계로 표시하였다.

3.3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 분석기준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요인은 ‘일반’, ‘학교폭력’, ‘학습 곤란’, ‘부적응’영역으로 나누었다. ‘일반’은 연구대상이 인지와 정서수준이 보통인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은 연구대상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학습 곤란’은 연구대상이 학습부진, 학습된 무기력, 낮은 성취동기, 높은 시험 불안 중에 하나라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부적응’은 연구대상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응 경험을 겪고 있는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어려움’은 비만, 장애, 부상 등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격려 선호도’는 칭찬과 격려를 평균 초과로 선호하거나 평균 미만으로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환경요인은 ‘위기가정’,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으로 나누었다. ‘위기가정’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 결손가정, 가족 구성원의 상실, 역기능적인 가족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이다. ‘저소득가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이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혼인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들로 분류하였다[1].

3.4 연구주제 분석기준

연구주제 분석기준은 논문 제목에 제시된 주제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성장, 정서안정, 사회성증진, 인지·행동 변화,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스트레스

관리, 기타로 연구주제 분석기준을 작성하였다. 한 논문에서 2개 이상의 주제를 함께 다룬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중복 집계 처리하였다. 첫째, 자아성장 주제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내적통제성, 회복탄력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기표현력, 자기조절능력, 자기결정성, 자기 만족도의 내용이 있다. 둘째, 정서 안정에 해당하는 주제로는 행복감, 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교우관계만족도, 정서조절능력 향상, 우울 성향, 심리적 안녕감, 분노 조절, 열등감, 감사성향, 실험 불안, 낙관성, 애착 등이 있다. 셋째, 사회성 증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대인관계, 교우관계, 긍정적 대처 능력, 또래관계, 사회적 지지, 학급 응집력, 공감 능력, 사회성, 의사소통, 친사회적 행동 등이 있다. 넷째, 인지·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습된 무기력, 학습동기, 수업 집중, 성취동기, 장애 수용 태도 향상, 학습태도, 진로 태도, 다문화 수용성 향상, 용서 수준 향상, 집단 따돌림 방관 태도 감소 등 있다. 다섯째,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교부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적응, 중독, 언어폭력, 학교폭력, 공격성, 사이버폭력 등이 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교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이 있다.

4.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 61편의 연구주제를 살펴보고 ‘자아 성장’, ‘정서 안정’, ‘사회성 증진’, ‘인지·행동 변화’,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스트레스 관리’, ‘기타’로 7개의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를 2개 이상 함께 다룬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중복 집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인 논문 총 61편에서 단일 변인은 35편, 2가지 변인은 25편, 3가지 변인은 1편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종속 변인에 제시된 연구주제를 중복처리하여 88편으로 집계하였으며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주제별 분석

[Table 1] Study Topic Analysis

	자아 성장	사회성 증진	정서 안정	학교적응 문제행동	스트레스 관리	인지·행동 변화	기타
계	27	16	16	14	9	6	0
%	30.7	18.2	18.2	15.9	10.2	6.8	0.0

[표 1]에서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아 성장이 27편(30.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성 증진, 정서 안정이 각 16편(18.2%),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이 14편(15.9%), 스트레스 관리가 9편(10.2%), 인지·행동 변화가 6편(6.8%), 기타가 0편(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격려 관련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 자기 만족도 등과 관련된 자아 성장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과 관련된 정서 안정 영역과 교우관계증진 등의 사회성 증진 영역이 88편 중에서 59편(67.1%)으로 사회성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연구에서는 정서 안정 영역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에서는 자아 성장 영역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4.1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시간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먼저 회기 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9~10회기가 19편(46.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회기가 8편(19.5%), 7~8회기, 11~12회기가 각 5편(12.2%), 13~14회기, 15~16회기가 각 2편(4.9%)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 별 시간을 살펴보면 논문 총 41편 중에서 40분이 22편(53.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시간이 10편(24.4%), 50분이 4편(9.8%), 60분이 3편(7.3%), 60분 이상이 2편(4.87%)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회기 시간은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회기 시간

[Table 2] Program Session Time

회기별	9회 이상	기타	7-8	11-12	13-14	15-16
논문 수	19	8	5	5	2	2
%	46.8	19.5	12.2	12.2	4.9	4.9
시간별	40분	기타	50분	60분	60분 이상	-
논문 수	22	10	4	3	2	-
%	53.7	24.4	9.8	7.3	4.8	-

[표 2]에서와 같이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시간을 살펴보면 논문 총 41편 중에서 9~10회기에 40분이 13편(31.7%), 기타 회기에 기타 시간이 6편(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아동의 수업시간 단위인 40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와 아침조회시간, 방과후 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많았다.

4.2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주당 실시 회기 수

[표 3] 주별 실시 회기 수

[Table 3] Number of Sessions Per Week

회기별	2회	1회	3회	기타
논문 수	18	13	2	8
%	43.9	36.6	4.9	19.5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주당 실시 회기 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먼저 주당 실시 회기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총 41편 중에서 주당 2회가 18편(43.9%)으로 가장 많았고, 주당 1회기가 13편(36.6%)이며, 주당 3회가 2편(4.9%) 기타는 8편(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별 실시 회기 수는 [표 3]과 같다.

4.3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먼저 프로그램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효과 있음이 30편(7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효과 있음이 10편(24.4%), 효과 없음이 1편(2.4%)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격려집단상당이 18편(43.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격려집단상당의 효과가 효과 있음이 10편, 부분 효과 있음이 7편, 효과 없음이 1편으로 효과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 중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의 최근 11년간의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의 보완점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기준으로 총 61편이 선정되었다. 이 논문들을 연도별 발표논문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주제, 격려 주제, 실험연구 설계로 기준을 나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특성은 개인 요인인 일반, 학교폭력, 학습곤란, 부적응, 신체적 어려움, 격려선호도를 모두 합쳐 61편(100%)이고, 그 중 학교폭력은 0편(0%)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인 위기가정,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은 각 0편(0%)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요인에 비해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아동의 환경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체계적인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18]. 따라서 학생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미래관 형성과 용기에 도움이 되는 격려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 학년은 전 학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학년(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6편(75.4%)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격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비교적 높고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학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재희(2014)에 따르면 격려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6학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효과가 크지만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하였다. 저학년과 중학생도 다양한 격려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특성에 맞는 격려 프로그램 재구성이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격려 집단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 참여 인원수는 조사연구의 경우 총 20편 중 참여 인원수가 400명 이상이 10편(50%)으로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실험 연구의 경우 총 41편 중 참여 인원수가 41~50명이 10편(24.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실험연구에서 현직 교사가 대부분 자신이 맡은 학생들과 동료교사가 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참여 인원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상 논문 총 61편에서 단일 변인은 35편, 2가지 변인은 25편, 3가지 변인은

1편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종속 변인에 제시된 연구주제를 중복처리하여 88편으로 집계하였다. 여기서 자아 성장이 27편(30.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성 증진, 정서 안정이 각 16편(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 존중감, 자기 만족도 등과 관련된 자아 성장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과 관련된 정서 안정 영역과 교우관계증진 등의 사회성 증진 영역이 88편 중에서 59편(67.1%)으로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심리학에서 격려가 자기 내면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주고, 공동체와의 단합을 촉진시키며 현실 극복의 자신감과 긍정적 미래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보아 이와 관련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를 격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비교적 높은 고학년 대상으로 자기 격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격려 관련연구에서 다양한 격려 주체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격려 연구의 필요성과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년 대상의 격려 프로그램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주당 실시 회기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9~10회기에 주당 2회가 13편(31.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회기에 기타 실시 회기 수가 6편(14.6%), 7~8회기에 주당 1회, 9~10회기에 주당 1~2회가 각 3편(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발달특성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효과 있음이 30편(7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효과있음이 10편(24.4%), 효과 없음이 1편(2.4%)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격려집단상담이 18편(43.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종속변인의 하위 요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가 많았으며 부분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격려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연구도 필요하다. 본 아동대상의 자기격려 관련 논문의 연구과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11년간의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동향 분석이 이루어졌다.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을 분석하였으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지 않은 연구논문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논문을 더 축적하여 동향 분석의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준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의 틀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 기준을 더 구체화, 세분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서 편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격려 관련 연구설계 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대상과 균형 있는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H. Jang, The Development of Program for the Self-Encour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nd its Effectiveness Utilizing the Enneagram,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2012), Vol.5, No.1, pp.49-72.

Available from: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243932>

- [2] J. H. Oh,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Children's Peer Relations :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mpathy and Emotional Regul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5), Vol.36, No.2, pp.17-37.
DOI: <https://doi.org/10.5723/KJCS.2015.36.2.17>
- [3] J. Carlson, Obituary: Don Dinkmeyer (1924-2001), *American Psychologist*, (2002), Vol.57, No.4, p.294.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7.4.294>
- [4] C. Y. Gi, K. J. Hong, H. S. Shi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tress, Self-Encouragement,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009), Vol.12, No.4, pp.117-133.
UCI: G704-SER00000779.2009.12.4.001
- [5] Y. J. Noh, J. S. Kim, Y. G. Kim. Influence of Self-Regulation and Self-Encouragement on School Adjustment, (2014), Vol.24, No.1, pp.51-64.
- [6] H. J. Kim,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encouragement,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pp.11-15, (2012)
- [7] E. K. H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Peer Relational Skill of Children who Used the Local Children Center, Dongguk University, Master Thesis, pp.7-10, (2014)
- [8] H. J. Hwang,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 Welfare Center, Konkuk University, Master Thesis, pp.11-16, (2018)
- [9] E. H. Kang,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s on multiple intelligences play group arts therapy(MIP-GAT) for improving self-efficacy & peer relationship, Chung-Ang University, Master Thesis, pp.13-16, (2011)
- [10] K. H. Jeong,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Group Art Therapy Experience of Community Child-Center Children, Hanseo University, Master Thesis, pp.15-18, (2017)
-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2019)
- [12] H. S. Kim, Y. S. Chae, G. R. Park, Effects of a Self-Growth Program on Self-esteem, Inferiority, and Peer-relationship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0), Vol.16, No.1, pp.1-9.
UCI: G704-001009.2010.16.1.005
- [13] K. H. Lee, G. A. Han, A Qualitative Case Study on Group Art Therapy for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ttending Community Child Center, *ART EDUCATION REVIEW*, (2018), No.67, pp.147-180.
DOI: <http://dx.doi.org/10.25297/AER.2018.67.147>
- [14] J. H. Shi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about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0-15, (2008)
- [15] U. H. Kim, The Effect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Male-Female Relationship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s and Relation with God, Keimyung University, Master Thesis, pp.9-11, (2004)
- [16] M. R. Kim,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Mokpo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3-17, (2005)
- [17] C. Y. Gi,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3-14, (2009)
- [18] E. S. Joo, B. J. Joh, A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Focusing, Oriented Art Therapy in Korea, An Analysis of Training Course Participants' Experienc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2), Vol.8, No.1, pp.115-144.
Available from: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553>